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20>

'글'과 '그림'은 원래 하나였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바우하우스, 게슈탈트 심리학 영향

그림으로 생각하는 '시각적 사고'

클레, 색채를 문학과 결합하려해

시적인 제목으로 대중 인기 얻어

가끔 중얼거릴 때가 있다. 그런 내 목소리를 행여 누군가 들었을까 화들짝 놀란다. 도대체 왜 중얼거리는 걸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화가 날 때, 아니면 몹시 창피할 때, 우리는 중얼거린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부른다.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이 현상을 "내가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고'는 타인과의 대화가 내면화된 '내적 언어'이며, 성인의 중얼거림 현상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적언어'가 은연 중에 외부로 새어나오는 것이라는 거다(이 현상을 철학적 개념으로 바꾸면 '자기성찰'이 된다).

'혼자 중얼거리기'는 우리가 '문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문장을 통한 생각'은 대부분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라는 논리적 추리방식에 기초한다. 미국의 논리철학자 퍼스는 주어진 명제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연역법을 '실명적 추론'이라고 정의하고, 주어진 사례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귀납법을 '평가적 추론'이라고 평가한다. 연역법은 어떤 것이 '반드시(must be)' 어떨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고, 귀납법은 무엇이 '실제로(actually)'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만 보여줄 뿐,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조적 사고와는 아무 관계없다. '문장을 통한 생각'은 새로운 것의 창조와는 크게 관계없다는 이야기다.

창조적 사고는 '혹시나(may be)'의 '유추법(abduction)'이라는 또 다른 사유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고 퍼스는 주장한다. 창조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혹시나'라는 질문의 사유체계는 대부분 '그림'을 통한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 루돌프 아른하임은 이를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라고 명명한다.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매개되는 생각이다. 오늘날의 지각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심상(mental imagery)'이라고 부른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통찰(insight)적 경험은 논리에 기초한 '문장을 통한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멍하니 있을 때 날아다니는 생각도 대부분 이미지적이다. 멍하니 있을 때가 가장 창조적이라는 이야기다.

생각은 '문장'일까? '그림'일까?

바우하우스에서 클레는 학생들과 철저히 그림을 통해 소통했다. 자신의 생각도 그림을 통해 정리했다. 클레는 '시각적 사고'의 대가였다. 무척 소심했던 그는 바우하우스 초기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다. 강의에서 해야 할 모든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준비했다. 바우하우스 시절 그가 남겨놓은 수천 장의 강의 자료는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

그 중 일부가 『조형적 사고(Das bildnerische Denken)』라는 제목으로 1956년에 출간됐다. '조

형적 사고'는 아른하임의 '시각적 사고'와 같은 맥락이다. 우연이 아니다. 클레를 비롯한 바우하우스의 선생들은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psychologie)'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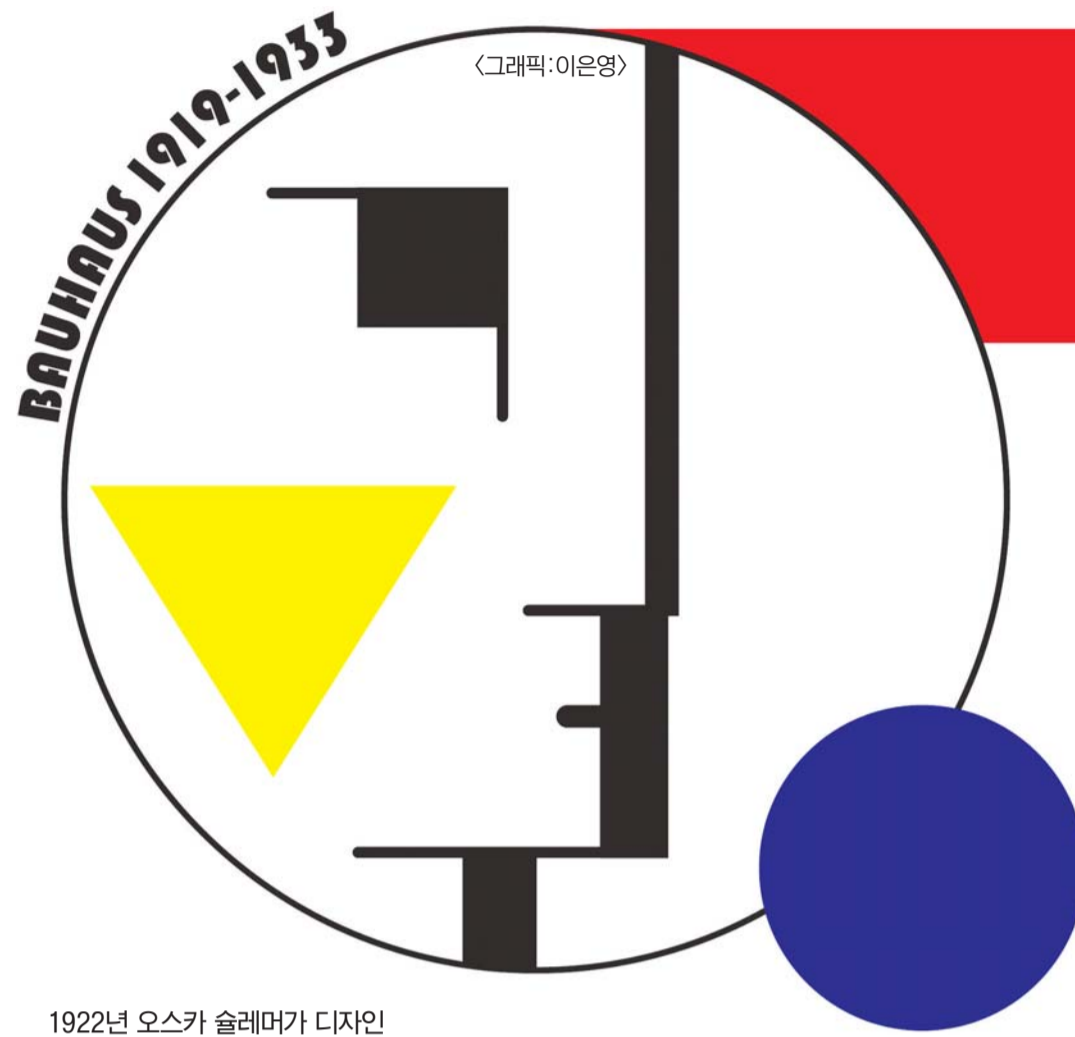
바우하우스와 동시대에 독일 심리학계의 혁신적 흐름을 이끌었던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과정은 자극의 선택적, 적극적 구성과정에 기초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게슈탈트(Gestalt)'는 '형태(Form)'라는 뜻을 갖지만, '형태'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감각은 조각된 '부분'과 '요소'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좋은 형태(Gute Gestalt)'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영어의 'design'은 독일어로는 'gestalten'이 된다).

이때 '좋은 형태'는 '유사', '근접', '대칭'과 같은 게슈탈트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관해 게슈탈트 심리학의 리더인 막스 베르트하이머는 "부분의 합은 단순한 전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클레는 실제로 베르트하이머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실험적 그림을 그렸다.

클레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아버지를 따라 독일이었다(후에 나치의 억압을 피해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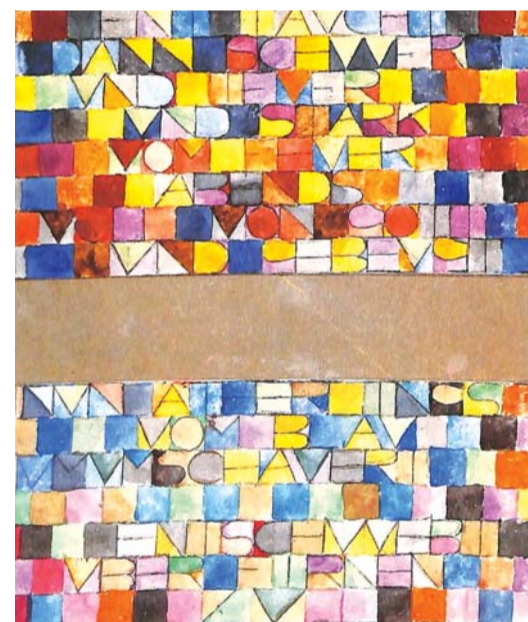


순수한 색채와 형태만으로 회화를 구성한 프랑수아 로베르 들로네의 '창'(1912).



1922년 오스카 슬레머가 디자인한 바우하우스 로고를 바우하우스 풍으로 형상화 했다. 불완전한 정보들을 조합해 의미 있는 형태를 구성한다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완결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국적을 신청하지만, 그의 소망은 사망한 직후에 이뤄졌다). 미술가로서의 삶은 대부분 독일에서 보냈다. 음악을 포기하고 미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클레는 독일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집합소였던 뮌



들로네의 색채를 도입해 그린 클레의 '밤의 회색'로부터 나오자마자 (1917/18).

헨로 옮겨왔다. 뮌헨 제세시온의 리더였던 뮌헨 아카데미의 프란츠 폰 스톡 밑에서 본격적인 회화 공부를 시작하지만, 진지하고 무거운 스톡의 스타일은 클레의 '즐거움 그림'과는 맞지 않았다(바로 그 옆 반에 칸딘스키가 있었다. 어렵게 입학한 칸딘스키 역시 스톡의 가르침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 서로 몰랐던 둘은 10년 후 '청기사파' 전시회에서 만나 평생을 '절친'으로 지낸다). 이내 스톡의 회화반을 그만두고 방황한다.

글과 그림, 그리고 음악의 편집

클레가 화려한 인상과 화가들의 그림을 접하며 자신의 그림에 절망하던 시간은 꽤 오래 지속됐다. 절망의 이유인즉 자신이 '선'에는 능숙하지만 '색채'에는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선을 쓰지 않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자연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인상파 그림들 앞에서 클레는 한없이 주눅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는 자신도 색채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프랑수아 화가 로베르 들로네와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1912년 봄, 파리 방문 당시 만났던 들로네의 '오르피즘(Orphism)'은 클레에게는 그때까지 막연했던 '음악적 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오르피즘'은 그리스신화의 오르페우스가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순수한 색채와 형태만으로 회화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들로네의 그림, 특히 '창' 시리즈는 클레에게 구원이었다. (사진 2)

문학적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클레는 들로네의 색채를 도입해 시와 결합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1917/18년에 그린 '밤의 회색'으로부터 나오자마자 라는 작품이다(사진 3). 클레 자신의 시를 화면 가득 채워 놓고 그 사이사이를 수채화 물감으로 꼼꼼하게 칠한 작은 수채화다. 시의 내용은 이렇다. "밤의 회색으로부터 나오자마자 / 타오르는 불처럼 무겁고, 귀하며, 강하게 되어 / 신으로 충만한 저녁으로 기운다 / 이제는 푸른 하늘에 둘러싸여 만년설 위를 떠돈다 / 현명한 별을 향하여."

이때 시작한 문학과 그림의 편집, 활자를 모티브로 하는 그림에 대한 실험은 클레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들로네의 색채를 경험하고 다양한 실험을 계속하던 이 무렵 클레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그의 '즐거움 그림들'이 1913년 베를린의 슈투름 화랑에서 전시되며 드디어 큰 인기를 끌게 된다. 아내가 피아노 교습으로 돈을 벌어오는 동안,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그림을 그려야 했던 '전업주부' 클레에게 드디어 '전업화가'로서의 가능성이 열렸다. 독일 아방가르드 화가들의 후원자였던 베를린 슈투름 화랑의 헤르바르트 발덴(Herwarth Walden)이 클레의 '즐거움 그림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뛰어난 사업수완을 가졌던 발덴은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차리기 힘든 클레의 그림에 시적인 제목들을 붙이라고 요구했다. 하여 클레는 '추상 1914'란 그림을 '운동적인 풍경'으로, '추상적 수채화'라는 그림은 '검은 파토스'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전시회 그림들 제목을 시작으로 다시 붙였다.

발덴의 아이디어는 적중했다.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의 무겁고, 비판적인 그림들에 지쳐있던 베를린의 대중들은 클레의 '기분 좋아지는 그림들'에 폭 빠져들었다. 이후로 클레의 그림들은 죄다 시적인 제목을 갖게 된다. '도시의 보석', '노란 반달과 Y자가 있는 구성', '숲의 리비도', '풍경 속의 검은 기둥들', '현재의 여섯 경계 안에서' 등등.

이후로 클레는 '언어의 미술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별명은 단지 그림을 팔기 위한 상업적 의도에서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다. 클레에게 '그림'과 '글'은 원래 하나였다(흥미롭게도 한글에서 '글'과 '그림'의 근원은 같다. 그러다! 그리고 한글에는 하나가 더 포함된다. 바로 '그리움'이다. 종이에 그리는 것이 '글'과 '그림'이고 마음에 그리는 것이 '그리움'이다).

클레가 끊임없이 시대의 문학적, 철학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사상을 자신의 그림에 담고자 노력했던 시도는 '음악과 그림의 편집'이라는 차원과 맞물려 '조형적 사고', 혹은 '시각적 사고'의 완성을 향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클레의 예술세계는 한국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된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